야만의 시대에 대한 회상

황 현 승

*황현승 님은 1935년에 태어나 당진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에서 수학하였다. 졸업 후 서울광신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되어 15년 징역을 선고받고 7년 10개월간 복역했다.

1974년의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관련되어 겪은 전말을 쓰라는 통지를 받고도 마을을 정하지 못한 채 미루어왔다. 그동안 세월 탓이든, 단단히 다잡아두지 못한 내 불찰이든 기억에서 지워진 게 많고, 중요한 내용은 이미 몇 분이 소상하게 써낸 바도 있어서 굳이 나까지 가세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우리는 여덟 분이 목숨을 잃었다. '법살(法殺)'이라고도 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의 정치적 '모살(謀殺)'이라고도 하는 저 1975년 4월 9일의 참담한 기억만도 심중에 간직하기가 벅차다. 또한 우리에겐 옷깃을 여미고 기려야 할 분들도 몇 분 있다. 문정현 신부님, 시노트 신부님같은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 참담한 심정과 고마운 분들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너무 무겁고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자잘한 얘기를 쓰겠다는 용기가 선뜻 나지 않게 했다.

그런데도 내가 생각을 바꾼 것은 '실록' 편집을 맡은 권희경 간사의 거듭된 독촉이 아직도 인혁당 사건에 대해선 밝혀야 할 것들이 많고, 그것이 당사자의 한 사람인 내 소임이기도 하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비록 내 경우는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이라는 크게 소용돌이쳤던 그 강물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의 파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1974년 5월 2일 초저녁 중정 요원들에게 연행당해 간 곳은 소문으로만 듣던 '남산'이었다. 헌병이 감시하고 있는 넓은 방엔

이미 여러 사람이 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저만치 창 쪽으로는 「분지」의 작가 남정현 선생의 기진맥진한 모습도 보였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남선생은 그때 1주일 전부터 작은 철제의자에 밤낮 앉아있는 고초를 겪고 있었다.

누군가 "오늘이 어린이 날인데"라고 혼자 말하던 그날 저녁 무렵 나는 조사실로 불려갔다. 부정(父情)이 그런 것인가. 카론이 지키고 있는 아케론강을 지나 지옥의 안뜰(단테의 신곡)쯤에 와 있는 처지일텐 데도 어린 자녀들 생각이 났던 듯하다. 나도 그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인 아들들 생각을 했다.

내가 본격적으로 고문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소견을 말하라는 질문의 함정에 빠진 다음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소견이라? 수사관의 질문은 예상과는 격이 전혀 달랐다. 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관은 존대법을 쓰던 신사(?)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주의도 그동안 수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고쳐야 할 점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것이 함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한 것이다. "그으래"란 단호한 외마디 외침이 날아오고 지하실로 직행했다.

내 눈의 시야에 속하지 않는 세계, 나라고 하는 세계의 한계를 넘은 다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이란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 적절한 말이 없으면 아무리 체험한 실재라도 표현할 수 없는 것같다. 특히 전기고문의 고통은 서술이 불가능한 실재다. 서른 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고통이 생생한 기억으로 떠올라 몸서리치지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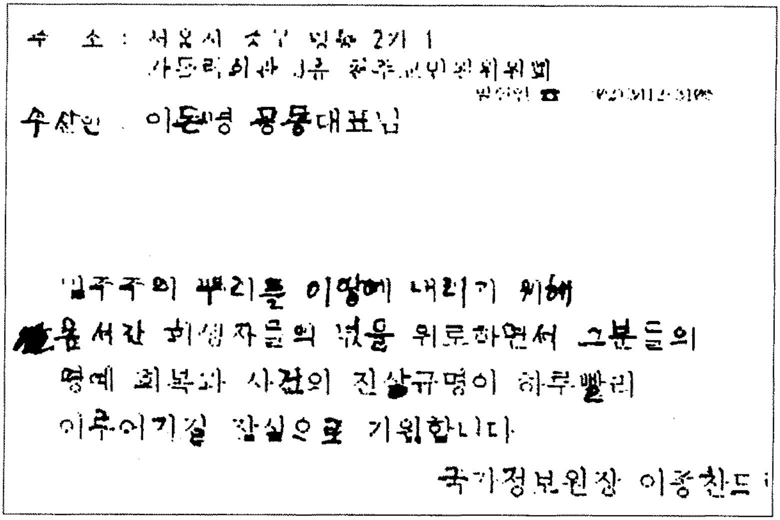
지 못한다.

자본주의에 관한 이론도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 롤즈의 수정자유주의 이론도 나오지 않았던가. 현실적으로도 복지제도를 통해 소유적 정의를 배분적 정의로 보완하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정도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심문의 비약과 횡설수설의 악순환은 올가미가 되어 점점 더 내 목을 조여왔다. 경험 많은 수사관은 내 의지력이 무너지는 정확한 시간도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끝내 무력해져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진술서를 받아쓰고, 그가 작성한 심문조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나는 올가미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모든 고문은 서명을 받기 위해 의지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예방적 고문'이었던 것이다.

만 닷새만인 5월 7일 밤늦게 서대문구치소 철제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살았다' 싶어 안도한 것이데, 우리는 그것이 플레게톤강을 건너 지옥의 중심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선 것인 줄을 그때는 몰랐다.

그 후 교도소에서도 또 한번 함정을 경험했다. 이번엔 신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었다. 백지에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해 쓰라는 것이었는데, 당시 교도소의 전향공작반이 쓰는 사상 검증 방법의 하나인 듯 했다. 머리 속을 염탐해보겠다는 고차원의 질문같기도 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해라, 만약 부정하면 유물론자 곧 사상이 불온한 자로 몰겠다는 위협적인 질문같기도 했다. 불가지론(不可


수신인 이돈명 공동대표님

민주주의 뿌리를 이땅에 내리기 위해
앞서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사건의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정보원장 이종찬 드림

▲ 1998년 국정원 이종찬 원장이 인혁당 희생자 추도식에 보내온 조전. "민주주의의 뿌리를 이 땅에 내리기 위해 앞서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知論)을 빌려 비켜섰지만, 20세기의 어설픈 한국판 마녀사냥 같아서 불쾌했다.

왜 하필 '신의 존재' 인가. 종교 일반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상을 검증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될 터인데. 나는 사회 · 정치 문제에서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철저한 무신론자인 사람도, 돈독한 신앙인이면서도 불온시당할 정도로 정치 · 사회문제에서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안다.

우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형식만 그러할 뿐이었다. 검사가 중정에 불려와 수사관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하는 것이니 중정 수사관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검사는 신문에도 이름이 오르던, 그쪽에선 중견 인물이

었다. 어찌 내면의 갈등이 없었겠는가. 그가 네 머리 속에 든 것에 대해서도 벌할 수 있다던 것은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그런 말을 내게 한 것은 자신이 휘두르고 있는 것이 무도한 칼이란 것을 자인하는데 따르는 고뇌의 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다.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질조사시 만난 고문 수사관에게서도 나는 가책의 회한같은 것을 봤다. 대질이 끝나고 헤어질 때 문 밖까지 따라 나와 손을 잡으면서 다음엔 서로 좋게 만나자고 말하던 그의 눈빛이 그것을 비쳤다.

어쩌면 그들 모두, 검사도 수사관도 유신독재시대의 한낱 희생자였는지도 모른다. 프란츠 파농도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책에서 고문을 당한 쪽이나 고문을 가한 쪽 똑같이 정신의 학적 장애 현상이 나타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박정희의 유신 독재시대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폭력적 절대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타자인 존재 곧 비주체적인 존재이길 강요받던 시대였다.

1975년 4월 8일 민청학련 · 인혁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재판한 대법원 판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법관들 중의 법관, 사법부의 정수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들이 온 세상이 개탄하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낼 수 없도록 하는 절대적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밖에 달리는 생각할 수 없다.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올라온 사건이 아니었다. 비상군법회의란 곳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군인들이 초법적으로 재판한 것을 그대로 추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살

인 재판' 이니 '히틀러 재판' 이니 '사법사상 암흑의 날' 이니 하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들이 그 재판에 붙게 된 것이다. 물론 외압 때문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돌아갈 불명예와 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데 같은 법조인이면서도 그들 법관들과 대조되는 분이 있다. 강신옥 변호사다. 대법원 판사들이 폭력적인 정치권력에 무릎 꿇고 법적 양심을 저버렸을 때 강변호사는 수난을 각오하고서 민청학련 사건을 변호하다 구속됐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기리 기억될 법 이론을 폈다.

이는 아테네 젊은이들을 잘못 인도한다는 등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망명이라는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형벌을 감수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소크라테스가 생각나게 한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흔히들 생각하듯이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면서 독배를 마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가 지킨 것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이었다.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이제라도 민청학련 ·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왜 그런 지탄받는 판결을 내렸는지를 법관의 양심으로 되돌아가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비록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자리를 물려받은 오늘의 법관들은 마땅히 전임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한 시대에 있었던 정치의 과오만이 아니라 법치의 과오도 청산해야 옳지 않은가.

1985년에 유엔이 결의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은 재판관들에게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정치적 의견에 따라 차별해선 안된다(8~10항) 하고, 또 재판관들은 그 직무의 존엄, 사법부의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8항)했다. 법관에게 '직무의 존엄' 까지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975년 민청학련 · 인혁당 사건 재판으로 손상된 법관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은 현 법관들의 피할 수 없는 책무다.

4월 오후의 하늘은 청명했다. 화사한 햇살이 형무소 건물을 비추고 있었다. 바로 저 해가 뜨기 전, 저 벽 뒤로 음침한 탑 밑에서 여덟 명의 남자가 교수형을 당한 것이다. 사형 집행이 있은 지 얼마 후 태양은 떠올랐고, 떠오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태양은 지겠지. 그러면 4월의 아홉째 날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또 저물고 말겠지.

1975년 4월 30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방당한 제임스 시노트 신부가 쓴 「현장증언 1975년 4월 9일」의 한 구절이다. 그날 시노트 신부가 서대문형무소의 높은 담 밑에서 망연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던 태양은 그 후에도 수없이 지고 뜨고 지고 떴다. 그렇게 서른 해가 지나갔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그 태양이 지고 떠야 박정희의 광포(狂暴) 시대의 너울이 모두 걷힐 것인가.

1974년 4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엮음

내가 겪은 민청학련 사건 | 유인태 |
반유신투쟁의 전개과정 | 정윤광 |
푸른 옷에 실려간 내 청춘 | 김학민 |
우리가 하나되던 때 | 최민화 |
그리움이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 이상익 |
열정과 번신의 작은 일기 | 임구호 |
빼앗긴 세월 8년 | 김종대 |
내 남편 우홍선은 결백하다 | 강순희 |
징역 15년에 항소 포기 | 김동길 |
민청학련사건과 인권변호사들 | 김찬국 |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 지학순 |
정의구현운동의 시대적 배경 | 함세웅 |
변호인, 변론으로 구속되다 | 강신옥 |

학민사 | 신국판 352면 | 값 9,500원
www.hakminsa.co.kr

1974년 4월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엮음

인혁당은 조작이다 | 서도원 |
인혁당은 결백하다 | 도예종 |
인혁당은 고문이 만들었다 | 하재완 |
인혁당은 무죄다 | 이수병 |
인혁당은 억울하다 | 김용원 |
인혁당은 허구다 | 우홍선 |
인혁당의 산실은 중앙정보부다 | 송상진 |
인혁당은 민청학련과 무관하다 | 여정남 |
민청학련사건과 나 | 임규영 |
빵잽이가 된 모범생 | 윤한봉 |
〈새얼〉 새내기의 민청학련 참여기 | 오성숙 |
1974년 1월의 풍경 | 박상희 |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 공덕귀 |

학민사 | 신국판 368면 | 값 9,500원
www.hakminsa.co.kr